

# Bridging for International Exchange

##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Hong, Kiwon

Chief Researcher,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When meeting and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new for the first time, having a common topic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The significance of Hallyu(Korean Wave), which stirred much interest in Asian countries since around the year 2000, lies not only in its contributions to introducing Korean popular culture to foreign countries, but also in its role of providing a familiar topic for dialogues between the countries. Above all, the consequence of these phenomena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me to be interested in relationship-oriented projects which tend to be more

or less distanced from producing tangible achievements or visible effects. In the business world, there is a prosaic advertising slogan, “we invest in people”. However, the reality of investing in people is so much uncertain to persuade the stakeholders to put in quite an amount of resources, especially when the investment is not for someone inside the organization but for whom staying outside. It was with these kind of arguable precondition that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CPI) was launched, but up to now the CPI has been enduring its life successfully despite those obstacles.

The CPI program was first mentioned in way of minimizing possible antagonism of unilateral infiltration of cultural industry, the permeation of Hallyu, to neighbour-

## ‘국제교류’의 다리 놓기

문화동반자사업의 성과와 전망

홍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문화침투가 아닌 문화동반을 시작하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대화함에 있어서 공통된 화제를 갖는다는 것은, 그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2000년을 전후하여 아시아에 불어온 한류 열풍은 거창하게는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이라는 의미를, 사소하게는 ‘국가 간 대화에 있어서 친근한 소재 제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좀더 나아가 한류의 의미 있는 공헌 중의 하나로, 정부가 물리적인 성과나 가시적인 효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관계’ 중심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람에게 투자합니다!’라는 기업의 광고 문구도 있던 하지만, 사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도 조직 구성원

이 아닌 낮모르는 외부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I)은 이러한 어려운 전제조건 속에서 시작하여 대견하게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한류의 확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예컨대 이웃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문화 침투와 같은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고, 문화교류를 보다 강화하려는 동기에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문화 정책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고, 또한 국제 문화 환경에 대한 우리 자신의 대응 역량을 단련시켜주는 더없이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 아시아 예술가들을 초대하다

문화동반자사업은 일반적인 문화예술 부문의 레지던시 사업과 유사하면서도 차별성을 갖는



ing countries. It was designed to symbolize multi faceted aspect and reciprocal nature of cultural exchange. The CPI, however, conferred us with true reflection on the essence of cultural exchange, also conferred significant meaning to the cultural policy in Korea. Now it is transforming into a indispensable program that strengthens our capac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e CPI resembles but also differs from other residency programs in arts and culture.

While most residency programs focus on strengthening the creativity of individual artist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the CPI emphasizes building network in the public sector of the arts world. In terms of range of partnership, the program gives priority to the countries that Korea has not been active in cultural exchange. In its earlier stage, the CPI invited only Asian countries that had limited exchanges with Korea, but now the range includes arts and cultural specialists

**table 1** Statistics of the CPI

Year	Budget(Won)	Number of Countries	Number of participants	Number of host organizations	Geographical region
2005	1.2 billion	17	57	11	Asia
2006	3.1 billion	21	144	27	Asia
2007	2.6 billion	30	130	27	Asia, South America, Africa
2008	2.0 billion	30	99	23	Asia, South America, Africa

문화동반자 사업을 통해 교류국가들이 한국을 한류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진정한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The CPI program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other than Hallyu.

다. 대부분의 예술 부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 개인의 창작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비하여, 문화동반자사업은 지금까지 한국이 문화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국가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초기에는 교류가 적었던 아시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남미, 아프리카 지역까지 포괄한다. 현재까지 30여 개 국가에서 3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만 30개국에서 100명가량이 참가하고 있다. 교류의 부문은 문화, 관광, 체육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공립기관과 국제교류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소수 민간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표1 참조)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구, 기획, 제작, 교육, 기술 연수 등 자율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문화 탐방 프로그램,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참여 기관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한국의 주관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수 혹은 공동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창작 활동과 아이디어 수집보다는 유사한 분야의 인력 네트워크 형성과 전문지식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한계로 다소 경직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 아시아 문화의 만남이 가져다준 것

외부적 관점을 지향하고 시작되었던 문화동반자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다방면에 있어서 효율성과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교류국가들이 한국을 한류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진정한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류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한 아시아권의 참여자들은 한국 문화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형성해간다. 특히 각자의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표1—문화동반자사업 추진 현황

연도	예산액(원)	참가국	참가인원	참가기관	초청지역
2005	12억	17	57	11	아시아 지역 시범사업
2006	31억	21	144	27	아시아 지역 시범사업
2007	26억	30	130	27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2008	20억	30	99	23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Program Discipline	Programs	Host Organizations
General Culture	Research, Training in Curatorship, Librarianhship, Arts Administration, Technological Training, Arts Education Research	Korea Cultural & Tourism Institut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Foundation, Arts Council Korea,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various nonprofit cultural foundations
Art	Artists Exchange(Fine Art, Traditional Art, Literature, Directing), Training in Art managemen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Seoul Performing Art Company, CID-UNESCO Korea Chapter,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Cultural Industry	Game Development, Film Industry, Film Directing and Techniques	Copyright Commission, Korea Game Industry Agency, KOFIC(Korean Film Council)-KAFA(Korean Academy of Film Arts)
Media	Training in Broadcasting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Korea Press Foundation
Tourism	Administration in Tourism, Craft Artists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Cultural & Tourism Institute, Korean Craft Promotion Foundation
Sports	Taekwondo the Martial Art, Sports Administration, Sports Policy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Korean Olympic Committee

**table 2 Programs and Range of Host Organizations**

from South America to Africa. Since the beginning of the CPI, more than 330 specialists from 30 countries have joined the program, and this year alone, about 100 specialists from 30 countries are participating. Specific subject area includes sub categories in the field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clude national as well as public organizations, and several private organizations which capacity and experience for international exchange has been promising. (table 1)

The scheme of this program consists of a host organization providing various opportunities for technical practicing and training, performance producership, production

management, curatorial exchange, and creativity exchanges. The programs begin with an orientation period where all the participants can meet each other at the same time and begin networking towards their stay in Korea. Not only being a place to know about basic facts and information on Korea, its culture and society, participants introduce themselves each other with different cultural property and backgrounds. Korean language course is offered to facilitate everyday life of the participants. At the host organization the participants collaborate in project or training course as planned ahead regarding to the participant's expertise. For some there is a need for more flexibility in the program, however,

부문	제공 프로그램	주관기관
문화 일반	연구, 연수(큐레이터, 사서 및 행정, 기술), 예술영재교육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도서관,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
예술	예술가 교류(전통예술장인, 작가, 연출가), 예술경영 연수 등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문학번역원, 국제무용협회, 서울예술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화 산업	게임개발자 연수, 영화인 교류 등	저작권심의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미디어	방송영상전문가 연수 등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언론재단 등
관광	관광 행정, 공예인 교류 등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예문화진흥원 등
체육	태권도, 국제체육인력 교류 등	체육과학연구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올림픽위원회 등

표2—문화동반자사업의 프로그램과 주관기관

경험하기 때문에, 높은 체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로, 미지의 문화예술을 접하고 비교해 가면서, 창조적 자극을 받는 효과가 있다. 상호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고유한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립극장의 예술가 교류나 명인명장 교류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셋째로, 문화동반자사업은 문화 다양성을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주민구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반해, 문화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동반자사업은 유용하고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 역할을 한다. 국립극장이 기획한 ‘아시아 문화동반자 특별 공연’이라든지, 국립박물관의 베트남전시실 개관과 전시 개최 프로그램은 국내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넷째, 문화동반자사업을 통해 각 기관은 국

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문화 부문에서의 국제 협력 업무의 프로토콜이나 매너를 익히게 되는 기회라는 점에서, 국제 문화교류에 종사하는 국내 인력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 초기에 정부가 주도하면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동반자사업은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세부 사항들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주관기관으로서 중요한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2 참조) 문화동반자사업의 프로그램이 이상적인 교류 모델과 현실적인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점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사업의 추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교류의 지리적 범위는 확대된 데에 비하여, 예산과 초청 인력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사업 운영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개선된 사업 구조와 효율성의 제고



문화동반자사업은 문화 다양성을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 CPI program provides a concrete and  
exemplar process of recognizing cultural  
diversity.

since it was started with the intention to emphasize more on building networks among expertise in the public field and among those with similar professions rather than on producing creative works.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elaborate the achievements and benefits of the CPI program as a result of only a short history. First, the CPI program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other than Hallyu. Participants from Asian countries who are familiar with the Korean popular culture through Hallyu develop profounder understanding on Korea once they experience different aspects of the Korean culture. Specifically job-related experiences ingrain more vivid feelings and make the program more effective. Second, encountering with arts and culture that are

unfamiliar in everyday life and also juxtaposing them in a comparative context, has an effect of stimulating one's creativity. Program in traditional artists exchange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s one of the examples where participants collaborated to sympathize with artist by performing together beyond the borderlines of country and ethnicity. Third, the CPI program provides a concrete and exemplar process of recognizing cultural diversity. Korea is on its way of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 sudden increase in immigrating population. Still, most citizenry have few opportunity to experience those changes and the presence of culturally diversifying society. The CPI program provides the general public with valuable and most meaningful encounters. Joint performances of invitees and members of residence companies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s such example. The new Vietnamese collection and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how the potential for developing various multi-cultural contents for domestic education in cultural diversity. Fourth, host organizations can improve their potential and capabilities



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중에서 사회악인 것처럼 간주되는 ‘다단계’적 요소가 인적교류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지난 3년간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다.

둘째로, 예술 교류의 효과와 영향이 장기적인 시간차를 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되, 국내적으로는 구체적인 성과와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발굴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는, 지리적 범위나 교류 참여자의 확대와 같은 양적인 요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는 교류 당사자 및 기관들에게 매우 유용한 공동작업의 기회가 되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셋째로, 사업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레지던시 성격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적인 국제교류사업 인력은 촉매제와 같아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화학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교류 담당 인력으로서의 태도와 품성이 기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어 능력, 매개 능력, 전문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친절한 통역도우미에 그치는 사람인지, 하나의 자원을 매개로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미를 짤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외연이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지원과 감성적인 지원이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후속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더불어 레지던시에서 생성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사소한 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대상 불특정적인 국제 교류 정책의 소중한 정책지지층(constituency)



in managing international affairs by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program. The program provides opportunities for employees of the organizations to experience and develop protocols and desirable behaviors required in doing international cultural collaboration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host organizations are investing in human resource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only by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The CPI program is evolving through continuous evaluations and feedback posed upon itself. In order to overcome the adversity against the programs of similar nature, namely residency program that does not yield perceivable output in the beginning stage, CPI maintains to achieve its long-term goal of sustaining the overall structure and having mor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included and conferring an important role in its operation. (table 2) To achieve multiple objectives, the ideals of cultural exchange itself and tangible benefits of cultural exchange, the CPI program may derive its hidden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Meeting the 4th year of operation, the program has gradually expanded regional inclusiveness, but on the other hand has reduced its budget with the number of invitees. There could have been factors of operational efficiency that result in the decrease in budget, but on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at a

program such as the CPI which involves human relationship and the network of people can eventually be effective only if it is maintain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hopeful, although, that the program can produce some effects at a national level apart from its prolonged effect in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the program needs to seek strategies linking itself with other local projects to produce concrete and meaningful results. Operating an exchange program building up on concrete project could be as much important as expanding geographical scope or increasing the number of invitees.

Due to its short history, the CPI program's coordinating staff and coordinators are not so much experienced in terms of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It is very important for relevant staff to obtain commitment and expertise on international exchange because they act as an 'portal' to each sub-program and look after follow-up network system. Staffs and coordinators who use their expertise and resources with commitment make enormous differences in terms of impact to the program compared to those who simply help participants in translation.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CPI program to sustain its systematic and emotional support for participants after the conclusion of its programs, as such support will contribute to solidarity among participants.

In policy terms, an international exchange

을 구축하는 힘인 것이다.

이처럼 국제교류사업, 특히 외형적으로는 수혜자가 외부인으로 비쳐지는 사업의 경우, 정책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존폐 및 지속성의 문제가 관건이다. 또한 정책의 결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과나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분위기에서는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마다 교류 활동의 본질로 돌아와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관계’ 혹은 ‘네트워크’라는 것은 교량과 같아서 하나의 연안과 다른 연안이 완전히 연결된 후에야 그것을 ‘교량’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건너다니는 사람

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과 다리를 만드는 노후가 필요할 것인지는 한 번이라도 발을 담가본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동반자사업(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culturefriends.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홍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에서 미학, 예술정책을 공부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관여했다. 문화정책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특히 국제 문화 교류, 문화외교, 다문화 정책 등에 관심이 많다.

program that hold its stakeholders outside of the internal policy setting, is often misunderstood of spending taxpayer's money for generous and diplomatic deed of the government. Sometimes it appears that the benefits are only spread among the invitees. But on the other hand since those beneficiaries are unable to involv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program itself can be vulnerable to political controversies. Whenever such opinion arise we have no way than go back to what a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should really be about. A relationship or network is like a bridge that connects one point to another. Building a bridge for international exchanges takes time, resources,

and know-how. One has to build to the completion from the first column to the last and pave the way in order to pass through it. Capricious input and plans lead to nowhere.

Please refer to <http://www.culturefriends.or.kr>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Hong, Kiwon** has been working in the cultural policy research field. She has studied Aesthetics, Arts Policy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She has been involved in launching CPI from its inception. Her main research field i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ultural diplomacy, and multicultural policy.

translated by **Hong, Kiwon and Shim, Jae Wook**